

Tel. 213-739-0403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E-mail : chdailya@gmail.com

THURSDAY, May 24, 2018 Vol. 626



나성순복음교회는 지난 20일 주일예배 후 성도들의 유권자 등록을 돋는 부스를 교회 곳곳에 마련했다.

“한인타운 지키는 일에 한인교회도 동참”

6월 19일 투표 앞두고 한인들 유권자 등록 도와

LA 한인타운의 절반 이상을 사실 상 방글라데시 타운으로 만들려는 6월 19일 주민투표를 앞두고 유권자 등록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방글라데시 타운을 반대하는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이 교회로도 확산됐다.

방글라데시 커뮤니티가 현 월셔 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의 북쪽 절반 이상을 리틀 방글라데시 주민 의회로 독립, 구성해 달라는 청원서를 LA시에 제출해 이미 승인을 받은 상황이며 이 청원은 주민들의 찬 반투표로 확정된다.

현재 LA한인회, 한인상공회의소, 한미연합회를 비롯해 수많은 한인 단체들이 반대 투표를 위한 유권자 등록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인교회들도 유권자 등록을 돋고 있다. 주 일예배 시 이번 이슈에 대해 광고하

거나 예배 후 유권자 등록을 원하는 성도들의 우편 등록을 위한 부스를 마련해 놓는 등이다.

한인교회들은 이번 투표가 한인 성도들의 삶에 직결되는 이슈일 뿐 아니라 무슬림이 절대 다수인 방글라데시인을 중심으로 주민의회가 구성될 경우, 이 지역의 교회 개척 및 종축, 이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갖고 있다. 또 주민의회가 거주민과 업주의 목소리를 시에 전달하며 개발 및 다양한 프로젝트를 사전 심의한다는 점에서 현 한인타운의 영적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24일 오전 7시 한인타운 가든스위트호텔에서 ‘방글라데시 구역 반대 연합기도회’를 열 계획

이며 이 기도회에는 LA 지역을 대표하는 목회자 12명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투표는 6월 19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버드초등학교(330 N. Harvard Bl. Los Angeles)와 파운더스 처치 오브 릴리저스 사이언스(3281 W. 6th St. Los Angeles)에서 진행되는데 투표하려면 반드시 유권자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체류신분과는 무관하며 이 지역에 거주 및 사업을 운영하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종교 및 여러 단체에 이해 관계가 있을 경우 투표 자격이 있다. 유권자 등록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LA한인회(323-732-0192)나 한미연합회(213-365-5999)로 하면 된다.

김준형 기자

온혜한인교회 창립 36주년 맞이해

은혜한인교회가 창립 36주년을 맞이해 지난 20일 주일에 기념감사 예배를 드리고 160명의 신임 제직 임직식을 거행했다. 또 감사예배에

앞서 17일부터 20일까지 장학봉 목사(성안교회)를 초청해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한기홍 담임목사는 “김광신 목사님의 교회 개척 당시부터

지난 36년간 선교에 힘써 57개국에 31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7개 신학교를 운영하게 된 것, 단일교회로서는 가장 많은 교회를 전 세계에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풀러신학교 포모나로 이전 결정

70년 패서디나 시대 종료

남가주를 대표하는 신학교 중 하나인 풀러신학교가 패서디나에서 포모나로 이전을 결정했다. 풀러신학교는 수년 전부터 캠퍼스 이전을 논의하다 지난 21일 이사회에서 ‘3년 내에 이전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풀러신학교는 1947년 패서디나의 레이크 애비뉴 회중교회(Lake Avenue Congregational Church)의 주일학교 교실을 빌려 첫 수업을 시작했고 1953년 현 캠퍼스로 들어왔다. 즉, 설립과 개교 이래 70년간 패서디나를 떠난 적이 없으며, 현 캠퍼스는 무려 65년간이나 머무른 곳이다.

풀러신학교는 최근 학생 수 감소와 부채 증대 등으로 인해 재정난

을 겪으면서 교직원을 감축하고 남가주 얼바인, 북가주 멘로파크, 위싱턴주 시애틀 캠퍼스를 폐쇄하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 패서디나 캠퍼스를 매각, 이전하게 되면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청산 할 뿐 아니라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포모나 캠퍼스 내에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풀러신학교 관계자는 “새로운 캠퍼스에서는 전통적인 학습 및 온라인 학습을 위해 설계된 최첨단 시설과 최신 중앙집중식 행정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캠퍼스가 인구 밀집 지역인 LA를 떠나 포모나로 이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당한 거리감이 느껴진다. 이는 수백 명에 달하는 한인 재학생들에게도 동일하다. 현재 풀러신학교에는 한인 등록생이 약 700명 정도 있다. 그러나 마크 래버튼 총장은 “전 세계의 지도자를 양성함에 있어서 거리는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 역동적인 온라인 학습을 경험하게 될 때,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범세계적인 관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학문을 가능케 하는 다양하고 폭넓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변화의 시기에 매우 중요 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 내 신학교들의 규모 감소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한인들이 많이 재학 중인 클레어몬트 신학교도 현 캠퍼스를 매각하고 오레곤주로 이전해 같은 교단(UMC) 소속인 월라메트대학교 내로 들어가는 안을 숙고 중이다. 북가주 밀밸리에 있던 골든게이트침례신학교는 이미 2016년 남가주 온타리오로 이전하며 학교명을 ‘게이트웨이신학교’로 변경했다.

김준형 기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되려면?

예브리데이교회(최홍주 목사 시무)에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 아래 6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목회자 세미나가 열린다. 강사는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원로목사와 사랑의빛선교교회 김재문 원로목사다. 평생 동안 건강한 교회를 일구고 섬긴 존경받는 목회

자 2명의 강의는 남가주 지역 목회자들에게 큰 도전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행사는 예브리데이교회와 사랑의빛선교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등록비는 100달러이며 6월 6일까지 등록하면 50달러로 할인된다. 등록비에는 아침, 점심 식사가 포함돼 있다. 문의) 818-832-6628

다음 주는 정기휴간입니다

**미용자격증
미용고급기술**

한인국가대표 아시아 챔피언 출신 강사 직장
QCA Beauty College
T.213-232-3837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리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시온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Olympic Blvd
Oxford Ave
Pico Blvd
Serrano Ave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10K Service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5-3180

목회자 세미나

“좋은 목사, 건강한 교회”

6/11(월)
10am~4:50pm

Main Speaker



김인중 목사
(안산동산교회 원로목사)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네 기둥”
“나는 행복한 전도자” 의 저자

6/12(화)
8am~4:50pm

Guest Speaker



김재문 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원로목사)

6/13(수)
8am~1pm

에브리데이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공동주관

회비: \$100 [6/6(수) 까지 등록시 \$50] (간단한 아침식사 및 점심식사 제공)
등록: 818-832-6628, 카톡ID/ pseminar (문의: 이준상 목사, 김수진 간사)
장소: 에브리데이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 한인기독교상담소 칼럼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부부, 연인, 부모-자녀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한 사람이 상대방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하는 폭력적인 언어 및 행동을 말한다. 가정폭력에는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언어·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영적 학대, 스토킹·사이버 스토킹·괴롭힘 등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언어와 행동 또한 포함된다.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이유는 원래부터 성격이 난폭했다든지, 피해자가 무엇인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든지, 부부간의 성격 차이, 가해자의 술 문제, 또는 경제적 갈등과 같은 문제 때문이라고 흔히들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가해자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습득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습득된 행동이며, 알코올이나 약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선택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가정폭력은 사회 전체의 모든 계층에서 즉, 교육수준, 소득수준, 종교의 유무에 상관없이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한다.

한편, 가해자들의 특성은 흔히 생각할 때 외형적으로 공격적이고 무서운 모습일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일 수 있으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주위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있으며, 이중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권위에 대해 도전적이다. 또한, 아동기에 직접 혹



송 조 이 상담원
한인기독교상담소

은 간접적으로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의사소통 기술도 부족하며, 배우자를 개인 소유물로 취급하며, 술이나 마약을 남용하기도 하며, 여자 또는 남자는 반드시 이러해야 한다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이 있다.

또한, 가정폭력에는 일정한 사이클이 존재한다. 보통 세 단계로 분류가 되는데 긴장 단계, 폭력 발생 단계, 화해 단계로 이 사이클이 반복됨에 따라 폭력의 빈도도 잦아지며 폭력의 강도와 위험도 역시 증가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가해자들은 폭력을 가한 행위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가정폭력은 습관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자책과 약속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반면에 피해자들의 특성도 낮은 자존감과 무기력함, 불신감, 우울증, 불안증 또는 다른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고립되어 있으며,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신체적인 통증이 있으며, 폭력가정에서 성장한 경우에도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높다. 한편

피해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해자를 떠나지 못한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이유, 신분 상태, 자녀 양육, 종교적인 이유, 두려움, 고립된 상태 등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더욱 떠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존중과 사랑이 있는 가정으로, 서로의 의논하여 상호 간에 만족할 수 있는 결정을 하며, 공정성 있는 타협을 통하여 한 사람의 고집이나 통제로 결정하지 않는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훈련해야 한다. 건강한 가정의 가족관계는 각자 일을 분담하여 책임 있게 행하며 서로 생각이 다를 때에는 비공격적이고 정직한 대화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인교회는 한인 이민자들의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및 예방의 중요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즉 한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에 대해 진상을 이해하며,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증진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교회 내 리더들은 가정폭력 문제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가정폭력의 피해자 및 자녀들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돋기 위한 훈련 및 가정폭력의 근절을 위한 교육을 받고, 주위 사람들을 훈련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에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그럴 위험이 존재할 때 무엇보다 전문적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의) 한인기독교상담소 (kacola.net)
전화) 213-738-6930 (LA)
657-529-1133 (OC)

알바인중앙장로교회(담임 이기업 목사)가 성령강림절과 교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며 ‘이은수 목사와 함께 하는 친양예배’를 19일과 20일에 드렸다.

행사는 박종혁 장로가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시작됐으며 이은수 목사가 ‘너는 내 아들이라’, ‘야베스의 기도’ 등 자신이 작곡한 곡을 부르며 메시지를 전해 큰 응답을 끌었다. 이 집회는 오는 27일(주일) 정오에 한 차례 더 열린다.

주소) 17702 Cowan Irvine, CA92614
전화) 714-329-2481



박승규 목사와 왕상윤 목사, 고승희 목사

넥스트사랑 왕상윤 목사 취임

열반인에 위치한 넥스트사랑의 교회가 지난 20일 주일 오후 4시 창립 9주년 감사예배 및 왕상윤 목사 담임 취임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의 사회는 박승규 목사(동부사랑의교회)가 맡았으며 박현식 목사(열반인사랑의교회)가 대표기도하고 김기섭 목사(LA사랑의교회)가 “점점 강하여지는 인

생(삼하3: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담임목사 위임식이 거행돼 왕상윤 목사가 담임으로 취임했다.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김승우 목사(할렐루야교회)가 영상으로 각각 권면과 축사를 전하고 고승희 목사(아름다운운교회)가 축하 인사를 전했다. 웰비 권 기자



새일교회에서 새생명전도축제가 열렸다.

태신자 품고 기도하며 결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교회, 새일교회(정병노 목사)가 20일 새생명전도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새일교회는 “36명의 태신자를 품고 지난 4개월간 릴레이 기도와 특별새벽기도, 목요일 중보기도와 매일 새벽예배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했다”면서 “이 기간 교인들 안에 전도의 사명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전했다.

정병노 담임목사는 “전도축제를 통해 태신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축복의 현장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이실 씨는 “전도축제를 통해 교회에 닫혀있었던 마음이 크게 열

렸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마이크 씨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간증했다. 이날 참석한 태신자 30여 명은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기로 다짐했다.

예배에서는 이영환 장로가 대표기도, 전도축제위원장 장양진 집사가 환영사를 하고, 정병노 담임목사가 요3:16-21을 본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새일교회는 LA 한인타운 760 S. Westmoreland Ave.에 있으며 주일 오전 8시와 11시에 예배를 드린다.

문의) 213-384-8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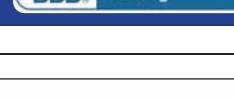
“너는 내 아들이라” 이은수 목사 친양 집회



찬양집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했다.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2018년 여름계절학기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본교 제38회 학위수여식

본교 제38회 학위수여식에

아래와같이 여러분을 모시려 합니다.

더불어 이번 졸업식에서는 본교 학생처장으로 섬겨주신
박충기 목사님의 은퇴식을 함께 거행합니다.

모두 참석하시어 졸업하는 학생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와 격려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섬기사는교회와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일시 : 2018년 6월 2일 (토), 오전 10시
- 장소 : 가나안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 (562) 866-0980



online.ptsa.edu

정회원 정회원 후보 유학생을 위한 I-20도 발행합니다.

2018년 신/편입생 모집

모집과정

신학사(B.Th.) 교역학석사(M.Div.) 크리스천상담심리학석사(M.A.C.C.P.)
철학박사(Ph.D. in Contextual Studies), ESL

일정안내

오프라인 개강일 : 2018년 8월 27일 (월) | ESL 개강일 : 2018년 9월 3일 (월)
온라인 개강일 : 2018년 9월 3일 (월)

CSAAVE

미주장신은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에서 승인을 받아
재향군인들에게 장학금과 그 외의 혜택 지급이 가능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담당자가 신청을 도와 드릴 수 있으시오니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Sunny Kim (Certifying Official)
T. 562-926-1023(ext.302)
Email : fsa@ptsa.edu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이상명 박사
이사장 박성규 목사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 Fax. (562) 926-1025 / office@ptsa.edu

감사한인교회, 아름다운 리더십 변화

구봉주 담임목사 취임, 김영길 원로목사 추대



구봉주 목사에게 담임목사 취임패를 전달하는 김영길 목사

“저는 구봉주 담임목사님이 무엇을 부탁하면 언제나 ‘네’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 권위 아래 있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감사한인교회에서 35년간의 목회를 마치며 은퇴하고 원로목사로 추대되는 김영길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권리 의식이나 자존심, 공치사도 없이 그렇게 노종은 40대 초반의 신임 담임목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새로운 사역을 위해 떠나기로 했다. 김 목사의 은퇴를 지켜보는 성도들 중에는 시종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이들이 적지 않

았다.

구봉주 담임목사는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한인교회에서 청년 담당 부목사로 섬겨왔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동사 목사로 섬겨왔다. 구 목사는 “김영길 목사님의 목회 비전인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정신을 이어받아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목회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

2018년 5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드린 담임목사 취임 및 원로목사 추대 예배에서는 박상훈 목사(빅토리얼감사한인교회)가 기도하고 손병렬 목사(포항중앙교회)가 “오직 하

나님의 은혜로라(고전15:1)”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리치 구에라 목사(미국 하나님의 성회 남가주 지방회장)가 구봉주 담임목사의 취임 서약을 받고 김영길 목사가 구 목사의 취임을 선포했다. 이어 지용수 목사(창원 양곡교회), 이정현 목사(빛과 소금의 교회)가 권면과 축사를 전했다. 그 다음 순서로 구봉주 목사가 김영길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식을 집례했고 추대를 마친 후, 박종순 목사(충신교회 원로)와 레이 레이첼 목사(교단 실행위원회)가 축사를 전했다.

김 목사는 감사한인교회를 남가주 한인교계를 대표하는 대형교회로 성장시켰을 뿐 아니라 2007년부터는 코로나, 빅토리얼, 다이아몬드바에 교회를 개척하고 2세를 위한 교회도 개척하는 등 교회 개척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미주복음방송 이사장, 통일선교전략협의회 이사장, 미주밀알 이사장을 역임하며 활발하게 사역해 온 김 목사는 이제 미자립교회를 위한 자비랑 부흥성회, 선교지 개발과 후원, 출판, 신학생 멘토링 등 제 2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감사한인교회는 감사선교재단(TMF)을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고 김 목사의 제2의 사역을 적극 후원할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손병렬 목사가 부흥회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첫 설교, 한 명 놓고 전했지만…”

갈보리믿음교회 손병렬 목사 초청 부흥회

갈보리믿음교회(담임 강진웅 목사)가 18일(금)부터 20일(주일)까지 손병렬 목사(포항중앙교회 담임)를 강사로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란 주제의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손 목사는 이번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자”고 강조했다.

요4:46-54을 본문으로 주일 2부 예배 설교를 전한 손 목사는 “당시의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의 신하 한 사람이 아들의 고침을 통해 자신과 함께 온 집안이 구원을 얻었다”면서 “아들을 고치고 자한 사랑과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다”고 말했다.

손 목사는 설교 중, 20년 전 풀러신학교에 유학 오면서 이민목회를

시작해 부교역자로 첫 새벽예배 설교를 전할 당시를 간증했다. 예배 시간이 지났는데도 성도가 한 명도 오지 않아 예배를 포기하고 집에 가려는데 한 권사가 교회에 왔다.

손 목사는 이번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자”고 강조했다.

요4:46-54을 본문으로 주일 2부 예배 설교를 전한 손 목사는 “당시의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의 신하 한 사람이 아들의 고침을 통해 자신과 함께 온 집안이 구원을 얻었다”면서 “아들을 고치고 자한 사랑과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다”고 말했다.

손 목사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갈보리믿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설립 20주년 향해 제2의 도약 마련”

새언약기독학교 제19회 졸업식

LA 한인타운의 대표적인 기독명문 사학인 새언약기독학교(New Covenant Academy, 이하 NCA)의 제19회 졸업식이 지난 17일 오후 6시에 교내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12학년 14명, 8학년 12명, 5학년 17명, 킨더가든 17명이 각각 졸업했다.

12학년 졸업생은 UC 버클리, UCLA, UC 리버사이드 등을 비롯해 아주사파시피대학, 바이올라대학, 보스頓대학, 페퍼다인대학 등 명문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며, 졸업생들이 학비 보조가 아닌 장학금으로 받은 총금액은 약 150만불을 기록했다.

제이슨 송 교장은 “졸업생들이 명문대학에 합격하고도 아주사나 바이올라 등 기독교 대학을 선택하는 것을 보고, NCA가 학생들의 가치관에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송 교장은 “내년은 설립 20주년을 맞는다. 졸업생들을 초청해 흠크밍데이를 준비한다”면서 “벌써 졸업생들 중심으로 동문회가 이뤄지고 장학금 기금을 조성해 후배들을 돋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에 NCA 설립 20주년을 맞아 캠퍼스 확장 이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설립 20주년을 기점으로 제2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날 졸업식은 제이슨 송 교장의 사회로 조셉 차 교감의 기도, 크리스티나 정의 선창으로 미국 국가 제창, 핸드벨 쇼와 핸드벨 공연, 키더가든부터 3학년의 특별 공연 후 제이슨 송 교장이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에게 특별상을 수여했다. 이어 수지 오 박사가 졸업 연설 후 데오도어 이 학생이 답사하고 제이슨 송 교장이 학위를 수여했다.

한편, NCA는 한인이 한인타운에 설립한 최초의 기독교 사립학교로 WASC 정식 인준학교이며 IB(국제 공통대학입학자격)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NCA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와 안전하고 가족적인 분위기의 학교로 알려져 있다.



NCA 졸업식이 거행됐다.

또 소규모 학급 시스템을 운영하며 현재 학생 대 교사 비율이 7대 1로 우수한 교사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신앙과 열정을 갖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기독교 학교다.

NCA는 현재 여름학기 및 가을학

기 신입생을 모집 중으로,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를 위한 특별 장학금 프로그램과 일반 장학금 및 재정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주소) 3119 W. 6th St. Los Angeles 웹사이트) www.e-nca.org 전화) 213-487-5437

J.C Superstar 뮤지컬 단원모집

대상 : 초, 중, 고, 대

고문위원 :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

자문위원 : SBS 생활의 달인, 꾸러기 탐구생활 이상호PD

아이비 유학 | T.(949)329-8222, (949)864-9162



현수막 | 천막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프로모션 상품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라피 디자인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미디어벽



현수막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66>

존재하는 교회 vs 사역하는 교회

필자는 지난 20여년간 목회를 하면서 몇 번 사역의 변화를 겪은 때가 있었다. 첫 사역은 청소년을 목양하며 교육목회를 하였다. 약 5년간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5년여간 중대형교회에서 교구 및 행정사역이었다. 그리고 개척교회 사역 2년 끝에 청빙받아 13년간 전통적 교회에서의 목회사역을 하다가 선교 비전을 받았다.

지금은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갖고 온 교우가 열방을 품고 마지막 시대 땅 끝까지 선교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새롭게 교회를 개척한지 2년째에 접어 들었다.

또한, 필자가 동역하는 선교단체 안에는 수많은 청년 사역자들이 활발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을 포함하여 약 20여 명의 대학 청년들이 지난 5월 초 방학이 시작되면서부터 미국 동부, 남부, 서부의 세 팀을 구성하여 미주 순례 대장정을 시작했다.

지난 주일 우리 청년들을 파송하는 파송식이 주일예배 시에 있었다. 파송식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온 교우가 함께 그들을 축복하며 합심 중보기도를 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그들을 파송하고 후원함을 결의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2명의 청년들이 대장정 파송을 받고 다른 청년팀들과 만나, 팀을 이루어 7월 말까지 2개월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그들 세 팀은 크고 작은 미국 내의 도시와 지방들을 돌며 현지의 다민족 교회들을 방문한다. 주님이 인도하시는대로 지나가다가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때도 있다. 그리고 지역마다 선교교 지부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 지부가 추천한 그 지역의 다민족 교회들을 방문하여 그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들과 연합하여 기도회를 갖고 선교 비전을 나누며 사역한다.

시작한 첫날 동부 팀의 사역 기도편지가 전달되어 왔다. 인도네시아인들의 교회에 가서 청년 그룹들과 연합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선교 비전을 나누었다고 한다. 이 교회에서 7명의 청년들이 우리 한인 청년들과 연합해서 선교 훈련을 받기로 결의했음을 알렸다.

힐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다. 온 세계 온 열방이 하나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님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증거, 곧 선교 비전을 나누며 글로벌 선교가 이루어지는 사역이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이미 1년 이상 대학생 선교사로 이슬람 선교지 사역을 마친 수십 명의 대학생 선교사 출신들이 미주 안에서 다민족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 교회도 지금 3명의 대학생 선교사가 I국과 E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며 교회는 이들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다.

필자는 선교적 교회를 꿈꾸며 주비전교회를 시작할 때, 아무리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탄생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지지하겠다고 기도로 다짐했다. 이 목회사의 꿈과 함께 할 사명자들이 되고자 할 때 비로소 우리 교회의 진정한 가족이 된다. 우리 교우들은 이슬람 선교와 중남미 선교를 병행하고 있다. 교우들은 각자의 입 양종족이 있고, 그 종족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관심과 사랑을 갖는다.

우리 교회는 교우들끼리 수련회 가듯이 가는 선교를 지향한다. 대신 교회가 연합하는 선교를 지향한다. 선교자는, 특히 이슬람 선교자는 영적 전쟁터이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애를 쓰고 긴장을 해야 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각자 다른 나라로의 단기선교팀을 찾아 생면부지의 4, 5명의 팀을 구성하고 이슬람권 영적 최전방 지역으로 파송되어 2주 혹은 3주간 복음 증거 사역을 전념으로 수행하고 돌아온다.

물론 독자들이 염려하거나 우려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훈련하면서 준비를 갖추며, 현지에 있는 전문적 장기 선교사들이 그들을 지도하는 체제이다.

<계속>



조세형평국이 왜 중요한가?

조세형평국(Board of Equalization)은 '세금 법정'이라고 불립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 세금 징수, 분쟁 종재 등 역할을 담당하며, 연 600억 달러에 달하는 가주 세금 운영을 책임집니다. 조세형평국에는 총4개의 지구가 있습니다. 제가 출마한 3지구에는 벤츄라 카운티와 LA카운티의 약 90% 지역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더욱이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 비율이 유난히 높은 한인 사회에서 조세형평국이 갖는 의미가 더 큽니다.

왜 벤 박 후보인가?

저는 남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와 UC버클리를 졸업했습니다. 사회로 나와 인쇄소와 헬스케어 등 다양한 업종의 비즈니스를 운영했고 한인 사업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세금 문제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직접 사업을 하면서 한인 정치력 신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주류 정치사회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캐빈 드레옹 상원의장 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가주 실세와 한인 커뮤니티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 조세형평국에는 한인 의원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세형평국은 비즈니스 사업자와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저처럼 한국과 미국, 그리고 남미 등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타 커뮤니티와도 교류하면서 조세형평국을 이끌어갈 자신 있습니다. 한인 정치인이 주류 정계에서 두각을 보일 수 있도록 한인 커뮤니티가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5일은 선거일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한 표가 한인 커뮤니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투표로 응원하세요!

www.BenPark2018.com / info@benpar2018.com

대표전화 / 213-884-3665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행복 선진국 덴마크와 그룬트비

당분간 이 지면에서 행복 선진국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우선 행복 선진국 덴마크를 살펴봅니다. 덴마크는 우리들에게 동화작가 안데센과 철학자 키엘케골로 잘 알려진 나라입니다. 공식적인 국호는 덴마크 왕국(Kingdom of Denmark)이며, 한자어로는 정말(丁抹) 나라입니다. 북유럽의 유틀란트 반도와 씨일랜드(Zealand) 등 500여 개의 부속 도서로 구성되었으며, 해안선의 길이는 7314km에 달합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가들에 의하면 덴마크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회복지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가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대신 국민들의 삶의 위기 문제를 대부분 해결해 줍니다. 덴마크에는 대학까지 교육기관에 학비를 전혀 없습니다. 즉 완전 무상교육입니다. 물론 병원비도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상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돌봐주는 그야말로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란 국가에 의해서 사회 안전망의 구축과 의료서비스, 교육 서비스가 보장되는 국가를 말합니다. 이 세 요소는 보통 정치적 결정과 국가 정부의 선택 그리고 국가 경제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인권의 보장과 민주주의 제도가 더해지면 명실상부한 복지국가가 됩니다. 복지국가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안녕감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세금만 정상적으로 잘 납부하면 덴마크 국민은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 교육이나 건강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실직에 대한 부담까지 국가가 책임져 줍니다. 실직하면 국가에서 직전 봉급의 70%에서 90%까지 해당되는 실직수당을 2년까지 지급합니다. 덴마크는 개인의 삶의 위기를 국가가 관리해 줍니다.

행복 복지국가 덴마크 뒤에는 덴마크 국부 그룬트비 목사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룬트비 사상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중(콜케)으로 요약됩니다. 그는 "부자가 적고 가난한 사람은 더 적을 때, 사회는 풍요로워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침된 덴마크인은 인간의 자유와 독립과 존엄을 파괴하는 세력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룬트비 정신에 의하면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존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룬트비 정신으로 무장한 덴마크는 오늘날 지구상에서 유도피아에 가장 가까운 나라로 알려집니다.

그룬트비 정신을 살피다 보면 Folke라는 말을 만납니다. 그는 Folke를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시켜 다양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덴마크 사회에서는 Folke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학교(Folkeskole), 교회(Folkekirken), 정당(Folkepart)의 이름에도 Folke가 있습니다. Folke는 그룬트비가 유행시킨 말인데 그가 사용하는 이 용어를 그의식대로 설명하면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룬트비는 또 "신앙인들이 '깨어 있는 시민'이 되어 이웃들을 '깨어 있는 시민'으로 세워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룬트비에 의하면 참 성도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이웃의 존엄과 자유를 보장해 주고, 그들의 삶에 안녕감을 제공해 주는 사회적 제도 확립에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목사로 살았던 그룬트비는 성경에 기초를 둔 사상을 발전시켜서 덴마크를 새롭게 했습니다. 덴마크의 사회복지 철학은 그룬트비가 품은 성경정신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졸업생들과 교수들이 졸업식을 마치며 기념촬영했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조세형평국이 왜 중요한가?

조세형평국(Board of Equalization)은 '세금 법정'이라고 불립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 세금 징수, 분쟁 종재 등 역할을 담당하며, 연 600억 달러에 달하는 가주 세금 운영을 책임집니다. 조세형평국에는 총4개의 지구가 있습니다. 제가 출마한 3지구에는 벤츄라 카운티와 LA카운티의 약 90% 지역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더욱이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 비율이 유난히 높은 한인 사회에서 조세형평국이 갖는 의미가 더 큽니다.

왜 벤 박 후보인가?

저는 남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와 UC버클리를 졸업했습니다. 사회로 나와 인쇄소와 헬스케어 등 다양한 업종의 비즈니스를 운영했고 한인 사업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세금 문제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직접 사업을 하면서 한인 정치력 신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주류 정치사회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캐빈 드레옹 상원의장 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가주 실세와 한인 커뮤니티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 조세형평국에는 한인 의원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세형평국은 비즈니스 사업자와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저처럼 한국과 미국, 그리고 남미 등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타 커뮤니티와도 교류하면서 조세형평국을 이끌어갈 자신 있습니다. 한인 정치인이 주류 정계에서 두각을 보일 수 있도록 한인 커뮤니티가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5일은 선거일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한 표가 한인 커뮤니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투표로 응원하세요!

www.BenPark2018.com / info@benpar2018.com

대표전화 / 213-884-3665

과부의 현금에 대한 칭찬의 의미

누가복음 21:1-4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현금하는 것을 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들은 자기의 부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 돈 주머니를 원손으로 추켜들고 오른손을 주머니 안에 넣고 휘휘 저으면서 돈이 많이 있음을 과시하고 그 중에 얼마를 집어 연보 궤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 틈새에서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금화도 은전도 아닌 동전, 구리로 만든 단위가 가장 낮은 돈 두 렙돈을 넣었습니다.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진 것의 전부를 넣은 것입니다. 그것도 참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아주 다소곳하게 얼굴 들기도 어려워 민망해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아주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 과부는 가치 단위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보잘 것 없고 작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 평가하시는 현금 가치의 기준이 금액의 단위에 있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그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과부가 과거 어떤 생활을 해왔고 지금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이 가난한 과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신 것을 보아 이 과부는 지금까지 살아오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고, 이제부터는 아무 것도 없지만 젊어 죽을지에 대한 걱정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책임져주실 것이라는 믿어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부는 남은 생활비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고 받을 때도 그 선물이 얼마나 비싸고 싼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선물 속에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스며들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처럼 그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극정성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에 보시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그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것과,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자기 가진 것의 전부를 드린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과부의 믿음의 정성이 예수님

이 보시기에는 가장 많이 드린 것으로 평가되신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 델라스 지역으로 선교를 갔을 때 초대받아 간 곳에서 하루를 묵으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나를 초대한 목사님은 하루에 2천불 이상을 벼신다고 합니다. 한 달에 20일 정도 일을 하면 4만 불을 벼는 셈입니다. 이 목사님 내외가 수십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두 분이서 이백 불을 가지고 가셨답니다. 그런데 이 내외는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답니다. 이분들이 그 때는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어디 잘 만한 처소도 구하지 못해서 그곳 예배당 긴 의자에서 잠을 자고 교회 화장실에서 씻으며 기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에게 감동이 오기를 본문 말씀인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그 과부는 모든 것을 드리고 젊어 죽었을까? 아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책임지시고 좋은 조건으로 살게 해주신 것이 아니겠는가?’란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에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미국에 와서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부인이 남편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현금을 의논했더니 남편은 부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려서 그 사람의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설교가 생각이 났다면서 가진 돈 이백 불을 전부 감사헌금으로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백 불은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이 각자의 이름으로 백 불씩 현금을 하니 교회에서는 많은 돈을 가지고 이민 온 사람들로 알고 교회 장로님들이 이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 사냐고 물으니 교회에서 산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대단해서 아버지 집을 떠날 줄 모르는 사람들로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심방을 한 번 가보고 싶다고 하니 “저희들은 집이 없습니다. 이 민을 때 가지고 온 것도 없어서 아버지 집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했더니 금세 인상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 있으면 안될 것 같은 그 표정을 보고는 다음 날부터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또 밤을 맞이합니다. 결국 갈 곳이 없어 다시 그 교회로 갔는데 다행히 문이 잠겨있지 않아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답니다. 하룻밤 쉴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

을 흘리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한 신발 수리하는 가게에 들어가서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며 서투른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가게 주인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사정이 끝해서 함께 일하자고 하며 한 달에 돈 칠백 불을 주었는데 그 당시 방세는 천 이백 불은 쥐야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교회에서 기거할 생각을 했습니다. 부인은 부인대로 한국인 식당에 가서 일해주고 사백 불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항상 일을 하면서 찬양을 했고 일에 열심을 다하니 4년이 지난 뒤에는 일류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다른 곳으로 돈을 벌러 가야하니 이 가게를 맡아 운영하고 한 달에 얼마씩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일을 겸손하고 성실하게 수행했던지 한 달에 4일 정도만 일하면 보내줄 돈은 다 마련되고 나머지는 모두 그 집사님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직원들도 둘 정도로 가게가 번창해지자 부인이 신학교를 가야할 때가 되었다고 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교회를 목회하는 것에 뜻을 두지 않고 세계선교를 위해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은 재물들을 사용하면서 남미 여러 나라, 멕시코 등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인 축구회를 만들고 그곳에 운영자금으로 매년 11만불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선교하시는 목사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구입한 집이라고 하며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기대하고 되시기 바랍니다.

시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돈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이라고 가지고 돈에 연연해하는 모습을 보일 때면 하나님도 인색해지셨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은혜만을 믿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모두 드렸더니 지금과 같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얘기도 덧붙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과소비와 사치를 일삼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는 인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해야 물질을 맡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임하실 것이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새로워지는 만큼 더 많은 물질의 밀천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적으로 물질을 사용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기대는 멀어지고 말 것이기에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뜻에 달린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행동하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조건으로 살리시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신에게 후하게 살다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어리석음에 머물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두 렙돈으로 가장 많이 드린 정성이라는 예수님의 평가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신문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 4시30분/동부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동부 오후 9시	AM1310 LA 미주 기독교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킬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Since 1999

www.e-nca.org

LA 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여름학교 모집
6/4 - 7/27



무료 앱 다운로드

New Covenant Academy
Now Available On

App Store Google Play Windows Phone

Android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쳐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1,390점 기록 (전미주 평균 1,060점)

• 지난 19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 (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운영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영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평생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입학 문의 (213)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FABIEN FINANCIAL INC.

무담보
비즈니스 론
Fabien에 맡기시면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융자, 쉽고 확실하게 해결합니다.

은행에서 비즈니스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도와드렸습니다.

- ✓ No 크레딧 Bad 크레딧, 융자 문제 없습니다.
- ✓ 세금보고서가 없이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 ✓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누구나 융자 가능합니다.
- ✓ 비즈니스 매매 융자

10K~500K 까지

캐쉬 어드밴스

SBA 융자

상업용 부동산

하드머니 [플리핑 융자/Flipping Loan]

www.FabienFinancial.com

금융 전문가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T. 714.264.7288 | 844.380.9990

fabiennfinancial@gmail.com

6131 Orangethorpe Ave #400 . Buena Park, CA 90620 (Center Park 빌딩 내)

Financial Freedom을 위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Business Service

- 주식회사 설립
- 비지니스 크레딧 Build Up
- 상업융자
- 비즈니스 매매 상담

Real Estate Service

- 리스팅 전문
- Flipping House 투자상담
- Flipping House 융자상담
- Hard Money



Love Foundation
LAW GROUP

컴브파운데이션

LDA#315 / Bond 가입업체 / 714.227.7358

6131 Orangethorpe Ave. #400 Buena Park, CA 90620 (Center Park 빌딩 내)

Premier Services Realty DRE #01895705

Dr. David Oh
법학박사 데이빗 오

- Azusa Pacific University 졸업
- Azusa Pacific University 석사
- Graduate School of Houston 박사
- Global Financial Service Certificate 수료



벤추라 따우전옥스에 위치한 주님의교회에서 행복 세미나가 열렸다.

하박국이 누린 행복의 노래 부르자

주님의교회 창립 3주년 기념 집회

창립 3주년을 맞은 주님의교회(오정택 목사)가 행복 축제를 개최했다. 주님의교회는 창립 3주년을 기념하며 전통적인 부흥회가 아닌 행복 세미나와 찬양 집회로 은혜를 나누었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의 행복세미나에서 메시지를 전한 강태광 목사(행복 설계사, 월드쉐어 USA)는 천지를 창조하시며 기뻐하신 하나님, 죄인이 구원받을 때 기뻐하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날에 구원받는 백성으로 기뻐하실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기쁘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고 강조했다.

19일 저녁 집회에서 강 목사는 성도의 전천후 행복 모델로 하박국 선지자를 제

시하면서 “하박국이 누린 믿음 안에서 불렀던 행복의 노래를 부르자”고 도전하였다.

이날 강 목사의 행복 특강에 앞서 찬양 사역자 이천 목사는 자신의 대표곡들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노래해 큰 은혜를 선사했다.

한편 주님의교회는 창립 3주년을 맞아 3명 명예원사, 3명 시무원사가 임직했다. 오정택 담임목사는 “창립 3주년을 맞아 이민교회 목회자와 성도의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정립할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상처와 편견으로 인해 굴절된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고 용납하는 변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름다운대화교육 지도자와 봉사자들

ABC대화교육 지도자 및 봉사자 훈련

ABC아름다운대화교육원(이사장 여천기 박사, 대표 여명미 박사)의 봄맞이 지도자 및 봉사자 훈련 모임이 개최됐다.

최숙희 전도사가 기도한 후, 흥성희 목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이란 설교를 전했다.

이어 여천기 이사장의 동기부여 상담법 강의가 이어졌다.

한편, 대화교육원 측은 “6월부터는 2세 자녀를 위하여 영어 교재로 대화교육이 진행되며 영어권 강사가 배출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베델한인교회 소망부 봄소풍

베델 소망부 봄소풍으로 행복 만끽

베델한인교회 소망부에서 5월 19일 봄 소풍 행사가 있었다. 온 가정이 함께 예배 드리고 각 가정에서 정성껏 준비해 온 음식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장애우들로 구성된 소망부를 섬기는

박정민 전도사는 “소망부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듣고, 알고,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문의) 박정민 전도사 909-319-8023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를 반대하는 집회 모습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 반대 집회

LA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를 반대하는 집회가 매주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토) 오후 4시 버몬트와 7가를 중심으로 제3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한인들은 LA시가 주민의

견 수렴 없이 강행한 쉘터 건립의 부당성을 알리는 “No Healing No Homeless Shelter”라는 현수막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허브 웨슨 시의회 의장에게 항의하며 공청회 개최와 쉘터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이 예배 오후 2:22 오후 6:20(토)
주일- 버금종학교 및 토요학교 - 17와 버몬트 코너
주중세부-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 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돕거나, 이민가정을 치료하여 선교방법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213)386-2233

장태원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1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LA 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기와 카탈리나)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 훈련회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아침예배 오후 8:00

써니김 담임목사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LA 씨티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돕거나, 이민가정을 치료하여 선교방법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213)386-2233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 예배 오전 11:00 토요아침세부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기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82

엘리야 김 담임목사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 예배(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월~토) 오전 7:0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기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김문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1:00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인장례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정병노 담임목사
대예배 1부 오전 8:00 새벽예배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후 1:00
유년주체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새 일 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N.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848-8690, (213)820-7240 Email: lsihil2011@gmail.com
(8기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인데 있습니다)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예배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종 담임목사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정장수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본당) 오전 8:30 새벽예배 오후 11:00
주일 2부예배(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본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세이비탈예배(스케일리) 오전 11:0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2911 Beverly Blvd., LA, CA90057
T. (213) 381-9490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화~금)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밀실대로 믿고, 밀실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월~토)
4대 시역 : 유아원 사역, 후학 사역, 장학 사역, 심자기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종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育부 오전 11:0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오후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유모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후 5:30 김성원 담임목사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후 6:00
주일학교 주일모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부예배(광복)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설교(광복)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월-금), 6시 30분(토)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부예배(광복)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설교(광복)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월-금), 6시 30분(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 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 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김성수 담임목사
2부영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토요한글학교 오전 10:00-오후 1:00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 예배 오전 7:45 종교부 예배 오전 11:45
2부 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 예배 오전 11:45 오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밀집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온라인예배) 5:30(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 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이춘준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람의 나눔터(마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00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00 (본성전) 토요예배 월-금 오전 6:00
본성전: 6670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록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이호민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7:00
3부 EM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장교동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 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정상용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 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 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제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 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권영국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9:30 종교비례예배 11:00
3부 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인양예배 오후 7:30

대홍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아/동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기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ulos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온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 877-7766 / www.gwctorrance.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50
3부 예배(광복) 오전 1:30 금요성령대명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주님세운교회
Vision 7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50
금요성령대명회 금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1부 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이호우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3부월인예배 오후 1:30
이름답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별이어 함과 같으니라(골 1: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0:00 김우준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아/동등부 오전 11:30
3부 예배(광복)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창고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 1부 예배 8:00 수요예배 오후 7:3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11: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예배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토론판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종교부 예배 10:30 김준식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10:00 한어성전 오후 12:30
주일 3부 예배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론판 조은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encecg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윤복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후 7:30
점은이예배 오후 2:00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 715-9902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부 예배 10:30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10:30 한어성전 오후 12:30
주일 3부 예배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nam.com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후 7:30
점은이예배 오후 2:0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후 10:00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후 5:30(월-금) 6:00(토)

온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60주년 기념예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교회 제공

“하나님 체험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

여의도순복음교회, 창립 60주년 감사예배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에서 창립 60주년을 맞아 16일 ‘비전 선포의 날’로 기념행사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에는 ‘60주년 감사예배 및 비전선포식’과 국제자연교, CGI(Church Growth International) 주최 선교 세미나, 대학청년 ‘The Holy Spirit Festival’ 등이 진행됐다.

이날 예배에는 대성전을 비롯하여 각 부속성전이 성도들로 가득했다. 은혜로운 찬양 후, 김상길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교무담당)와 황현주 아나운서(YTN) 소개로 입장식이 치러졌고, 만국기와 각국 대표단들이 입장했다.

개회선언에 이어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합창이 이어졌으며,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지난 60년간의 모습을 스크린 영상으로 회고했다. 비전 메시지를 선포한 이영훈 목사는 “1958년 5월 8일, 대조동 천막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님과 최자실 목사님이 5명과 함께 시작한 교회가, 하나님은 혼자 놀라운 부흥 성장을 이루었다”며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조용기 원로목사가 ‘성령이 불러 시키시는 일(행 13:1-3)’을 주제로 설교했다. 조 원로목사는 삼중 축복(요삼 1:2)을 다시 설명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조 목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됐다. 우리 교회는 늘 기도하는 교회”라며 “18일 상암 월드컵경기장에 함께 모여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에 힘쓰자. 우리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용기 목사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교회로서,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며 “우리는 선교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굳게 서서 모두 힘을 합쳐 나아가자”고 했다.

축사를 전한 김장환 목사(극동방송)는 “조 목사님은 한 번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누가 부탁을 하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CGI 대표(란짓 아브라함 목사), 아시아 방한성도 대표(장한업 목사), 선교사 대표(진유철 목사), 개척교회 대표(손문수 목사)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다.

교회 측은 조용기 원로목사와 이영훈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으며, 엄기호 한기총 대표회장이 축사했다.

이번 여의도순복음교회 창립 60주년 기념예배에는 수만명의 각국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했으며, 인터넷과 모바일 등으로 생중계됐다.

60주년 기념행사는 17일 ‘화합의 날’로 ‘60주년 컨퍼런스 1, 2부’, 교회학교 ‘Power School Festival’ 등이 진행됐다. 60주년 당일인 18일은 ‘성령충만의 날’로 ‘2018 한반도 평화와 희망나눔을 위한 기도대성회 1-3부’가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저녁에는 ‘2018 서울 찬양 콘서트’와 ‘미스바 기도회’가 대성전에서 드리졌다. ‘기념전시회’와 ‘문화엑스포’도 진행돼 교회 초창기 시대 모습을 재현했다. 22-23일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및 국민일보 창간 30주년 기념 축하감사 오라토리오 연주회’가 예술의전당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렸다.

이대웅 기자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포럼 제공



부탄 교회의 여름 청년 캠프가 진행되고 있다. ⓒ부탄복음연맹

기독교는 문화나 종교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부탄복음연맹, 청년사역 현황과 도전 전해

불교 민족주의가 강세를 보이는 국가인 부탄은 인구 중 75% 이상이 불교인이며, 인구 중 소수를 차지하는 기독교인들은 차별과 편견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부탄복음연맹(Bhutan Evangelical Alliance)의 푸조 왕모 청년위원장은 부탄의 청년사역의 현황과 도전에 대해 전하며 “교회는 부탄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부탄의 청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음란물 등 다양한 비디오를 매우 어린 나이부터 접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서핑과 게임을 하는 것은 청년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생활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많은 시간을 소셜미디어에 사용함으로서 개인적인 기도와 성경공부 시간을 감소시키는 문제 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적절한 직장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기

독교인 청년 중에도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부탄의 청년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부모의 신앙을 계승한 2세대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이다. 그런 면에서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구원의 확신보다 단지 문화 혹은 종교의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탄복음연맹 청년위원회는 매 월 세션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공유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부탄 사회의 약물과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만연함에 따라 교회 안의 청년들이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가 있다. 교회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장소가 되고 있다.

왕모 청년위원장은 “약물과 알코올에 중독된 청년들이 교회에서 열리는 청년 그룹의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중독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가정교회 급습해 성경 1,000개 몰수

중국 교회 향한 박해 극심해

2018년에도 중국 당국의 기독교 박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산동성 지닝시에 소재한 5개의 가정교회를 급습해 1,000개 이상의 성경을 몰수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도책과 찬송가 등이 강제로 압수되었고, 성경의 디지털 사본도 압수되었다.

당국은 이번 단속이 포르노를 표적으로 한 것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으나 종교 서적만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닝시의 한 기독교인은 “경찰이 교회에는 매우 적대적이지만, 지역의 불교 사원들은 표적으로 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윤리와 종교국” 관계자들도 경찰의 단속에 합류했다”고 말했다.

올해 초 100명의 기독교인들이 소위 말하는 ‘재교육’ 수용소로 보내진 후, 중국 당국의 기독교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강혜진 기자

한 지역교회 지도자는 오픈도어와의 인터뷰에서 “정신개조센터”는 수감자들에게 종교가 아닌 국가에 충성할 것을 지시하고 가족들의 열악한 상황을 전달해 염려하게 만든다”고 했다.

이 가운데는 이슬람 소수민족인 위구르족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도 중국의 반 테리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자주 수용소로 보내진다. 이 가운데 일부는 한달, 혹은 6개월 또는 그 이상 수용소에서 지낸다.

차이나에이드에 따르면, 지난 2월 해난의 공산당 관계자는 지역의 강파들을 동원해 교회와 집회 장소를 급습했다.

이 공격으로 문과 창문이 부서지고, 의자와 모든 기독교 서적이 압수됐다. 또 수많은 예배 참석자들과 목회자들이 남치 됐으며, 교회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다.

강혜진 기자

NASA 기술로 사해 사본 해독

육안으로 못 보던 구절들 식별 가능해져

사해 사본의 해독되지 않은 기록들이 첨단 이미징 기술을 사용하는 학자들에 의해 해독됐다고 29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이스라엘 유물 권위 연구소(IAA)에 따르면 쿰란(Qumran) 동굴에서 1950년대 발견된 사해 사본을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사본의 일부를 읽을 수 있게 됐다.

수만 장의 양피지와 파피루스 조각이 전체 사본과 함께 발견됐고 그 중 일부는 해독된 적이 없지만, 연구자들은 NASA 용으로 처음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 일부 사본을 식별할 수 있다고 전했다.

IAA는 “새로운 문자와 단어의 확인은 사본 연구를 위한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하며, 파편 중 하나는 심지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본의 존재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사해 사본 해독은 IAA 사해 사

본 유닛의 연구원인 오렌 에블맨(Oren Ableman)과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박사 과정 학생에 의해 연구됐다. 이들은 쿰란 근처의 ‘동굴 11’에서 발견된 수십 개 사본 파편을 조사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임크 흔적을 발견하게 됐다.

이들은 공개된 연구 발표에서 “많은 사본의 파편들에 기록된 문자를 성공적으로 해독했다. 작은 파편에서는 몇 글자 밖에 없었지만 텍스트를 재구성하기에 충분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해독된 사본에는 레위기와 신명기, 희년제 등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시편 147편 1절의 시작 부분이 기록된 ‘시편 사본’에 속한 파편도 해독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사본의 일부에는 고대 히브리어(paleo-Hebrew)로 쓰여진 글자가 포함됐으며 알려진 사본 중 일부가 아닐 수도 있다. 이것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사본에 속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5:30

EM 예배 (1부) 오전 9:30
EM 예배 (2부) 오전 11:00
한국 청년부 주일오후 1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체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후 10:00
19514 Ranch St., Northridge, CA 91326 583 Altas Ave, Montlake Park, CA 91755
Tel: (323) 833-0900

MP체플
주일 1부 예배 오후 9:30
주일 2부 예배 오후 11:30
1615 Altas Ave, Montlake Park, CA 91755
Tel: (323) 833-0900

최혁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민경열 담임목사
2부(한국어) 오전 8:00
밀辱상사세번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정오 12:00 한국학교(교회)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0: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2:30
토요새벽양예배 오후 6:30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 691-0691

박재만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국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민승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9: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 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김현요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7:15
2부 예배 오전 9:15
3부 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한기홍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7:30
2부 예배 오후 9:30
3부 예배 오후 11:30
4부 예배 오후 1:30 (한국어)
PAME예배 오후 11:30 (청년 영어)

얼바인 침례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김인철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토요일 오후 6:00
E.M(Youth)오전 11:00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풀풀로 함께하는 운동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한기홍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후 6:00
2부 예배 오후 9:30 새벽 예배 오후 6:00
3부 예배 오후 11:30 새벽예배 오후 7:30
4부 예배 오후 8:00

온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싱글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백정우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시 수요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전 9:30
3부 예배 오후 11:30
청년예배 오후 7:30
정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 ~ www.dongshinchurch.com

김철준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1:30
어린이예배 오후 11:30
침례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예배 오후 9:15
고등부 예배 오후 11:30
한인부 예배 오후 11:30
KMC대학원부 오후 2:00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의 기쁨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안성복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모전 11시

다우니제일교회
세 사람을 일으라 (엡4:24)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PASTOR JUSTIN KIM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PASTOR HAROLD KI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ASTOR DAEVID YOON
Sunday Services: 11:45 AM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PASTOR JAMES KWAK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PASTOR RONNIE PARK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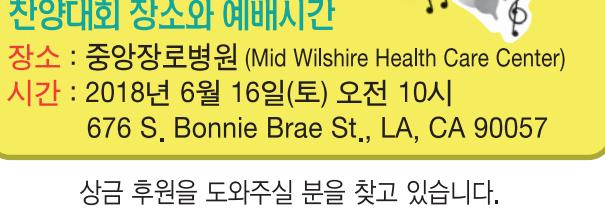
PASTOR DAEVID YOON
Sunday Services: 11:45 AM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제25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기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아이트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 L.C.D

협찬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가주치과 대표 오득재 원장,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기순대
뉴욕제과, 한솔종합보험,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재), 라이온스클럽, 올림픽 칼국수, M.G.M

후원

†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담임목사 청빙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에서 예수님이 뜻에 따라 참되고 신실하며, 성경적 개혁 신앙을 갖추신 목사로, 영성, 인성 및 믿음의 본이 되며 젊은 세대 부흥과 세계선교 지향적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는 1977년에 창립되어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소속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선교의 비전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써 온 성도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한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지원자격

-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교단에서 인정하는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M.Div. 학위 취득자
- 목회경력 : 담임목사, 선교사, 부목사 5년 이상(미국 목회 3년 이상 경험자)
-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 선호
- 미국 내 목회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는 분

제출서류

- 이력서
- 목회철학과 비전 및 이민 목회의 사명 소견서
- 자기소개서 (신앙고백, 목회경험, 가족소개, 사진)
- 대학 및 신대원 졸업증명서 및 목사안수 증명서
- 최근 1년 내의 2편~5편의 설교 동영상
- 목회자 2명의 추천서

제출 마감일

2018년 6월 15일(금)

제출처
oc1newpastor@gmail.com

기타사항

- 서류는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PDF or WORD)
-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OC1 church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range County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위치하며, 지난 44년동안 “주님사랑, 영혼사랑, 인재양성, 복음전파”의 사명을 이루어가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미국 남침례교단에 속한 얼바인 침례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 5대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합니다.

자격조건

- 정규 목사교육과정(M. Div.)을 이수하고, 침례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타 교단에서 안수 받은 목사인 경우 미 남침례신학대학원에서 남침례교단의 교리와 신학배경을 6개월정도 이수해야 하며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
- 목사안수후 5년 이상 담임목사 또는 장년사역 부목사로 활동하신 분.
- 이중언어가 가능하신 분 선호 (한국어/영어)
-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미국내 합법적 체류로 근로조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 이력서 (3개월내 활동한 사진 첨부)
- 학위증명서 (학부, 신학대학원) 및 목사 안수 증명서
- 설교 CD/DVD/USB, 2개 또는 동영상 주소
- 목회 비전 (목회동기 및 목회철학) 및 계획
- 본인, 사모 및 가족 소개서 (신앙관, 목회경력, 가족사진 포함)
- 추천서 2매 (각 추천인의 밀봉날인)

접수마감: 2018년 6월 30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심사후, 청빙 보자에게 개별 통지 해드립니다. 접수는 이메일로(pdf.file)만 받습니다. (첨화 문의 사항)

제출처

-얼바인 침례교회 청빙위원회, Irvine Baptist Church,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Email: Pastoralcall.ibc@gmail.com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949)857-9425 www.irvinechurch.com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자



민종기 목사
총현선교교회

최근 저녁, 교회를 향하여 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류현진 선수의 선발 등판 경기 중계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1회를 마치는 상황에서 좀 더 듣고 사무실에 들어갈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일 설교할 것도 미리 연구하여야 하고, 내일 새벽기도도 준비하여야 하는데…” “이 저녁에 여기까지 와서 야구 중계방송을 들어 말어?” 망설이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에이 일어나자!” 사무실로 힘차게 들어섰습니다. 귀중한 저녁시간을 요긴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 날마다 수많은 결정을 합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혹은 습관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정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데, 우리 마음은 전쟁터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세력을 확장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과 회복된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행위는 현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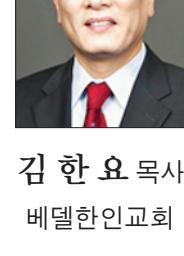
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다양한 관계를 파괴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첫째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갈5:19)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파괴하는 “우상 숭배와 주술”과 같은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원수 맷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념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갈5:20)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넷째로는 자신과 자신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갈5:21)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윤

법의 정죄 아래 있는 것이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색다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행위가 타락한 옛사람의 습성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누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완전히 대조되는 예수님이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성품이 자리잡도록 만들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합니다(갈5:22-23). 이 모두는 성도의 마음 속에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새로운 인격의 향기로운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됨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점차 변화되는 사이에 성령의 9 가지 열매를 마음 속에서 받아 누리게 됨을 약속합니다. 육체의 일이 현저한 것처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분명합니다. 이는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밤길 만난 인생의 조명탄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처녀 담임 목회를 하던 시절, 대학생들과 함께 인근 산으로 하이킹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당시 어린 두 아이, 딸 4살, 아들 2살 짜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해서 하산을 해야 했습니다. 대학생 언니 형들과 놀았던 두 아이가 피곤하다며 침얼거려, 힘들지만 아이들을 업고 내려와야 했습니다.

이미 많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앞에 가는 학생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뒤로 쳐져 그만 일행을 놓치고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두운 산길을 한 시간가량 아이를 업고 헤맸던 것 같습니다. 당시는 핸드폰도 없었던 시기라 연락할 수도 없고, 무작정 내리막길로 갔다가 길이 끊기고, 때론 길이 보이지 않아 길을 헤悌더니 칠칠 뻔하기도 했습니다. 겨우 길을 찾아 찾길까지 내려왔는데, 완전히 반대편으로 내려와 저희 일행과 만나는 것은 그 후 한 시간 후에 가능했습니다. 길을 모르는 가격을 똑똑히 치웠던 날이었습니다.

성경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잠29:18)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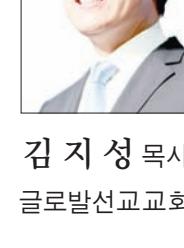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이 앞을 보여주지 않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살아 길을 잃고 헤매고 만다는 뜻입니다. 비전이 없이 살면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비전은 내가 하고 싶은 애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전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더불어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밤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119:105) 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은 걸어갈 길을 환히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밤길에 빛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두컴컴한 산 속에서 천근만근 애를 들쳐 업고 비지땀을 흘리며 헤맸던 시간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그 때 플래시라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로등도 없는 길에 손전등이 얼마나 고마운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길의 빛’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밤길 만난 인생에 하나님의 쏘이는 말씀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읽는 수면제 같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만난 은인과 같고, 실연의 상처에 앞길 불투명한 자녀에게 찾아온 따뜻한 엄마의 손길 같고,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들로 사방이 둘러싼 상황 속에서 구출 작전을 벌이는 특전단 같고, 불치의 질병 속에 만난 명의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이 별빛도 없는 밤하늘 같이 깜깜하십니까? 말씀을 펴십시오. 하나님께서 꽂아 올리는 조명탄을 보실 것입니다.

성경읽기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스코틀랜드의 목사였던 로버트 맥체인은 22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7년간 목회를 하다가 2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젊은 생애였고, 젊은 목회활동을 했지만, 맥체인 목사는 교회 성도들에게 큰 감명을 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마틴 로이드존스는 그의 저서 <부흥>에서 로버트 맥체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그 성자 같은 사람이 주일 아침 강단에 올라서면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흐느끼기 시작했다. 산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던 모세처럼 그가 오면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것을 분명히 알았다.” 19세에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였으니, 그의 신앙 생활은 10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맥체인의 10년 신앙생활은 영적 진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영동성이 완전히 배제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교인들을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자신의 교회가 위치했던 소도시 던디의 성역화를 이루었습니다.

아무리 목사라 하지만 20대의 인생 초년생에 불과한 로버트 맥체인의 뜨거운 영성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아닌 성경읽기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다. 그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매일 두 시간은 성경읽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성경이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고 새롭게 만드는 듯한 체험을 매일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놀라운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성령님의 깊은 감동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천국에서 만나게 될 믿음의 선배들을 미리 만날 수 있습니다. 학문이 결코 전달해 줄 수 없는 원색적인 지혜를 접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깊은 비밀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모르고서는 신앙입니다.

활은 굳건히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님의 역사는 성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룩함의 근원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거룩함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찾기에 목말라 합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기도에 목숨을 걸기까지 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앞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갈구했던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 담겨 있었음에도 읽지 않음으로 파악을 못했을 확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모태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에 관한 내용을 모른다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아직 한 번도 못 읽어 보았습니다”라고 당당히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신앙의 본질이 성경으로부터 시작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을 통한 인생의 지각변동을 경험해 보고 싶어합니다. 그 인생의 지각변동은 성경 없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읽기에는 ‘충분’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펼칩니다. 분명 성경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강렬한 힘과 지혜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철학자가 된 셜록 홈즈 영혼과 자유의지의 문제를 파헤치다

추리소설 기법의 심리철학 입문서 펴낸 리브 김 박사

최고의 탐정 셜록 홈즈가 '현대 심리철학' 수사에 나섰다. '현대 심리철학으로의 모험'이라는 부제를 단 책 <철학자가 된 셜록 홈즈>는 코난 도일의 추리소설 기법을 차용해 현대 심리철학의 최근 주제들을 소개하고 있다.

심리철학과 추리소설이라는 두 난제를 벼루려 빼어난 작품으로 재탄생시킨 저자는 울산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철학박사 리브 김(김남호). 심리철학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는 형이상학(metaphysics)의 한 종류로, 오래 전부터 '영혼과 신체의 관계' 등을 탐구하는 철학자 등에 의해 그 명맥이 이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영혼은 존재하는가? 감정, 느낌, 믿음과 같은 마음의 상태들은 무엇인가? 자유의지는 무엇인가? 행위는 무엇인가?' 등 과학이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고 있으며, 이는 기독교에서도 자주 묻는 질문들이다. 신경과학 등 뇌과학의 발전으로 신앙적 동기가 하나님의 '두뇌 작용에 의한 물리적 현상'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최근 기독교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한 상태다.

저자는 "신경과학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 성과를 내놓게 될 것인데, 이는 우리 인간을 철저히 생물학적 존재, 물질적 존재로 보게 만들 것"이라며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이를 묻지 않고 과학 기술에만 투자한다면 결국 이 사회는 쏟아지는 신경과학적 연구 결과 앞에서 인간의 정체성과 자연 내에서 인간의 지위에 대해 대대적인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다음은 이 재미있는 심리철학 입문서를 내놓은 저자의 이야기.

-현대 심리철학을 추리소설에 담아낸 책을 구상하신 계기와 동기가 궁금합니다.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철학, 그 중에서도 형이상학을 쉽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세계적으로 아직 사례가 없는, 셜록 홈즈 이야기 형식을 통해 심리철학 내용을 담아보자는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설록 홈즈 시리즈에 대한 애정이 듭



철학자가 된 셜록 홈즈
리브 김
새물결플러스 | 256쪽

뜻 느껴집니다. 코난 도일의 소설이 교수님의 인생과 가치관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요.

예나 지금이나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는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소설이 제 인생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언젠가 소설을 쓴다면 코난 도일이 즐겨 사용한 기법들을 응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 심리철학은 철학 또는 현대 철학과 얼마나,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우선 심리철학은 영혼과 육체, 마음과 신체, 의식과 두뇌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다루는 형이상학 분과로서, 이미 고대 그리스 철학까지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령 플라톤의 <파이돈>은 영혼과 육체의 관계, 영혼의 존재론적 특징을 논증하는 심리철학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철학은 '분석적 심리철학'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언어 분석적인 방법이 그 이전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책에 나온 최신 심리철학 논의가 무엇에 대한 것이고 어떤 입장이 있는 것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음의 본성에 대한 문제 이외에도 마음은 물질 세계에 인과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자유의지는 있는지,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형이상학적 물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장마다 중요한 입장들이 와슨의 보고서 형식을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철학의 주류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독교 신앙과 신학, 또는 기독교의 세계관이 현대 심리철학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물음에 대한 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확실한 점은 신학이 묻는 인간이 따로 있고, 형이상학이 묻는 인간이 따로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형이상학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특성을 묻는 분과라면, 결국 신학은 형이상학의 발전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형이상학 없는 신학이 가능할 수는 있어도, 신학이 실재에 대한 물음을 묻고자 한다면 형이상학은 필수적입니다.

-신경과학(뇌과학)의 발전이 심리철학 논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 책에 나오는데요. 신경과학이 발전하면 기독교적 인간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플라톤이나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들은 이성적인 능력이나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등과 같은 정신적인 능력이 영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경과학은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이 두뇌 활동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뇌의 특정 부위에 대한 손상이 특정한 능력의 손상이나 저하를 초래한다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영혼과 신체의 결합물로 생각하는 실제 이원론은 그 입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기독교적 인간 이해가 반드시 실제 이원론을 전제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고 나면 현대 심리철학은 AI와 힘 데우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와도 관련이 깊은 것 같은데 맞나요. 이런 시대에 기독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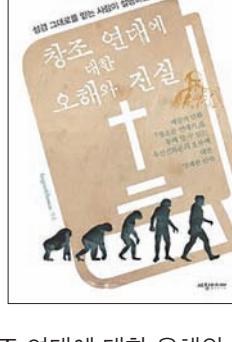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인공지능이 탐재된 로봇에게 인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와 같은 물음들은 행위의 본성, 인격의 본성 등과 같은 형이상학적 물음들입니다.

형이상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아주 많은 문제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크리스천들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형이상학적 문제의식에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형이상학뿐 아니라 윤리학, 논리학 등도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과들은 여전히 우리의 지성을 건강하게 만들 어 주는 중요한 자양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진짜 나이는? 창조 연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유신 진화론과 오랜 지구론에 반론 제기



창조 연대에 대한 오해와 진실
평가 오브 토마스
세창미디어 | 264쪽

해 공개토론회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런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각 이론의 장단점과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과학은 '자연주의'를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창조주의 존재와 그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는 인본주의적 가정일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빛의 속도가 역사 내내 일정했음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빛의 속도가 항상 지금과 같았음을 가정하고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라고 계산한다는 게 이 책이 지적하는 '오랜 연대'의 오류 중 하나다.

저자는 이 책의 머리말에서 "우리가 정말로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중립적으로, 양심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과학의 발달은 오히려 진화와 반대되는 증거들을 나타내며, 진화론의 한계와 비과학성을 증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지구가 언제 생겼을까? 연대 문제는 오랜 논쟁거리다. 이런 가운데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처럼 오래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책 '창조 연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최근 출간됐다. 이 책은 최근 한국에 불어오는 이른바 '유신 진화론'을 포함해 '오랜 지구론'에 어떤 논리적 모순과 과학적 불합리가 있는지를 꼬집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이 젊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기독교 웹툰 '에글'의 '창조론 연대기'에 대한 반론 형식이라는 점이다.

작가(fingerofthomas)는 이에 대

니다.

탐구하고 있습니다.

-책의 마지막에 큰 반전이 나옵니다. 의도하신 바가 있는지요.

책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게 되면 그 반전이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홈즈가 악의 화신에게 선포하는 '형이상학의 승리'가 그것입니다.

그 반전이 의미하는 바는 형이상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감각적 경험과 주론을 통해 범인을 잡았던 홈즈가 인격 동일성에 대한 나름의 기준으로 범인을 잡아내는 설정을 통해, 그 중요성을 암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수님의 주된 연구 주제는 무엇인가요.

저는 '구성주의적 인격이론'에 대한 연구논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격 개념을 통해 인간을 통전적으로 설명하면서, '강한 일인정 시점'

같은 고유한 존재론적 특징을 학술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행위자의 조건, 도덕적 책임의 조건 등과 같은 문제들을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 사회는 예전히 '힐링'을 필요로 하는 사회입니다. 베스트셀러 목록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요. '힐링'이 필요한 사회란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사회이며, 합리적인 토론이나 투명한 의견수렴이 아닌 다른 불순한 것들에 의해 이끌려지는 사회를 의미할 것입니다.

'힐링'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인 사유의 주체로 서야 합니다.

독립적인 사유의 주체란 스스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숙고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으며, 타인의 그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자신의 말과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미를 묻고 근거를 묻는 행위'로서의 철학이 초등학교부터 자리잡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사회를 '힐링이 필요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주인공들입니다.

이대웅 기자

숨겨진 20야드를 찾아드립니다

골프클럽의 성능 70%는 샤프트에 달려 있습니다

위텍골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나만의 名品 클럽을 가져 보세요!



세상에
오직 하나

당신만을 위한 맞춤클럽

Private Lesson

단기간 집중 골프스윙 완성

(스크린 통한 구질 분석, 자신의 스윙을 모니터로 보며 교정)

FITec
GOLF

MATRIX SHAFTS

FOURTEEN

The clubs for the discerning golfer

위텍골프 피팅 스튜디오

213.327.4080 / 213.315.5179

3050 W. 7th St #101 Los Angeles, CA 90005

월요일~금요일 9:30~7:00 토요일 사전예약 Only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훼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CHRISTIAN BUSINESS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빠른 송금·환전
빠른 지급

\$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Stand X-Banner \$65 Retractable Banner \$14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국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유마티스 관절통증
*티항생 관절통증
*순통, 발톱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혹,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오통
-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 파우더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3달분 \$60

배 빠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ww.sellacare.com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서울대학병원 암센터내 고려대 안암병원내 입점

혈액 · 혈관 · 기운 · 면역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알카리성
셀라케어

산성	중성	8.5	9.0	9.5	10
3.5	6.0	7.0	8.5	9.0	9.5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황금 사원의 모습



성전 산에서 볼 수 있는 이슬람 박물관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75)

성전 산의 이슬람 사원

성전의 역사

이전 글에서 통곡의 벽을 소개할 때 이미 구약에 사용하였던 성전 산(Temple Mount) 부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주로 예수님이 시대와 아랍 시대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소개하고자 한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열두 살 되던 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부모님들과 헤어져서 사흘을 지내며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토론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누가복음 2장 참조)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 이까” 하시며 성전이 곧 하나님의 집임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 후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이루신 후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사역하셨던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온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받으며 내려오시기를 원하셨던 곳도 성전이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다.(마태복음 21장 참조)

성전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시며 우시기도 하시고 마지막 날을 대비

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도 성전이 있던 곳에 멸망의 가증한 것 이 설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성전이 있던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골고다까지 가셔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단번에 죄 사함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마태복음 27장 참조)

헤롯의 웅장한 성전(46년 걸려서 지은 성전, 요한복음 2장 20절)은 힘없이 로마에 의하여 파괴되고 성전의 자리엔 로마의 우상인 제우스 신전이 서게 된다. 주님의 말씀대로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게 된 것이다.

이슬람과 황금 사원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여 비잔틴 시대를 거쳐 638년 아랍 시대가 되면서 하필이면 마호메트가 성전 산 이삭의 번제단이 있던 바위에서 승천하였단 말인가? 이것은 물론 무슬림의 전승이고 실제로는 아니다. 마호메트는 예루살렘을 사모하였지만 와 보지 못하고 시리아

원정 준비 중에 죽었다.

그러나 그들도 구약을 신봉하기에 성스러운 장소인 이곳에서 마호메트가 승천하여야만 하였던 것 같다. 그가 공작꼬리 달린 신마를 타고 승천하려는데 바위가 따라 올라가려고 하니 천사가 못 올라가게 꾹 눌러놓은 자국이 있다

고 한다. 678년경 오마르라는 칼리프에 의해 사원이 지어지고 이름을 오마르 사원 또는 바위 사원(Dome of the Rock)이라고 하였다. 성전 산에서는 이슬람교 3대 사원 중 하나인 황금 사원을 볼 수 있는데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40세에 계시를 받은 후 620년에 이곳에서 가브리엘 천사의 인도로 천마를 타고 하늘나리를 방문하였다 한다.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도 만나고 7층에서는 하나님인 알리를 만나서 계시를 받았다 한다. 승천 둠 안에 바위 밑에는 혼의 동굴이 있는데 온갖 영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

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여 이곳에 들어가면 으스스하다.

바위 둠은 직경이 20.2m이고 높이는 20.48m이다. 요르단 왕 후세인이 황금을 둠에 덧붙여서 다시 만들어서 지금은 황금 사원이라고 부른다.

시대가 지나면서 한때는 십자군에 의해 교회 구역이 되었지만 오스만 터키에 의해 지금의 황금 사원의 모습으로 웅장하게 건립이 되면서 예루살렘의 명물이 되고 전 세계 무슬림들의 제3의 성지로서 자리하게 된다.

2000년 9월 아리엘 샤론(전 이스라엘 총리)의 성전 산 무단 방문으로 충발된 위기는 이전에 황금 사원과 무슬림 박물관 엘악사 사원의 입장장을 불허하게 되었다. 한동안은 성전 산 출입도 봉쇄되었지만 지금은 성전 산 자유롭게 시간 및 추억 올라가서 볼 수 있다. 지금도 성

전 산의 소유는 무슬림으로 엘 악사 사원을 중심으로 금요일 예배에는 수천 명이 모이고 라마단에는 수십만 명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몰려든다.

성전 산으로 가려면 예루살렘 옛 성을 들어가서 통곡의 벽에 가기 전에 검문소와 가교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가교를 넘어 무그라비(Mughrabi) 문을 지나야 한다. 문 안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이슬람 박물관으로 문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다. 이슬람 시대의 여러 유물들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시간을 내지 않으면 쉽게 볼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다음은 엘 악사 사원이다. 원래 솔로몬 성전 시대에는 남쪽의 마굿간으로 사용하던 곳인데 십자군 시대에 와서 십자군들이 교회를 지어 사용하였던 곳이고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이슬람 사원 중 하나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장 신성시 하는 사원이다. 이곳에서는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는 무슬림들을 금요일마다 볼 수 있다.

<계속>



성전 산의 흔적 일부



황금 사원의 전경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여름학기 신입생, 편입생 모집

참, (진리의길) 앞, (학문의 길) 뒷길, (십자가의 길)

본교 지원시 특전

6월 21일 개강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

총회(미주내),

개혁 장로회 한미 연합 총회
(한국과 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M.A 석사과정 | 48학점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는 곳,
우리의 굳어버린마음을 여는 곳,
꿈을 잃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곳,
그리하여 충만한삶을 회복하는 곳

나눔과 섬김의 교회

SHARING & SERVING CHURCH

당신을 초대합니다

새신자를 위한 주일예배에 초대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세요

주일 예배 | 오후 2시

육신적 질병과 영적 치유함을 통하여
강건함을 나눠 드립니다

수요 치유 예배 | 오후 7시 30분

담임목사 : 엘리야 김 목사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Tel.213-272-6031

“수평이동 원인은 인간관계? 결국 ‘예배와 설교’”



개회예배 후 기념촬영이 진행되고 있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실천신학 과제’라는 주제로 제68회 한국실천신학회(회장 김경진 교수) 정기학술대회가 19일 서울 광장동 장로회신학대학교 여전도회기념음악관에서 개최됐다. 학술대회에서는 박관희 박사(나사렛대)가 ‘교인의 교회이탈 과정 연구: 종교사회학, 심리학, 예배학의 융복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는 ‘교회이탈 현상’을 기준 교회성장학 또는 종교 사회학적 접근방식이 아닌, 심리적 접근을 시도했다.

◆교회이탈, 신앙심과 소속감 모두

박관희 박사는 “종교는 신앙심과 소속감을 제공하는데, 만약 교회가 회중에게 신앙심과 소속감 사이에서 불균형을 제공한다면 회중은 교회를 떠나거나 종교를 바꾼다. 전자는 수평이동, 후자는 개종 또는 세속화 현상으로, 이 두 현상을 ‘교회이탈’이라 명명하고자 한다”며 “신앙심은 예배 경험과 성경공부를 통해 기독교 정체성 형태로, 소속감은 예배 참석과 목회적 돌봄을 통해 인간관계 형태로 각각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박 박사는 “기존 연구들은 소속감에 의한 인간관계 문제로 교회이탈 현상을 설명했지만, 교회이탈은 신앙심과 소속감 모두에 의해 일어난다”며 “존 새비지(John Savage)에 따르면 교인은 먼저 교회에서 무관심(교인)과 지루함(예배)을 느끼며 이어서 불편함을 느낀다. 이때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불안감이 다른 생활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교회 출석과 종교적 사고가 감소된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세속화 연구에서는 한 개인의 세속화 과정(cycle)을 제시했다. ‘소속 없는 신앙인(중고등학생 출생동시집단)- 신앙 없는 소속 인(대학생활 출생동시집단)- 소속 있는 신앙인(취업준비 및 직장생활 초기 출생동시집단)- 종교적 무신론자(결혼과 가정생활 초기 집단)’의 과정”이라며 “주목할 점은 세속화(종교적 인본주의자)는 수평이동

(신앙 있는 소속인 또는 신앙 없는 소속인)에서 출발해 교회를 안 안다거나(소속 없는 신앙인), 타종교로 이탈하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박관희 박사는 “북미 교회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더 의미 있는 종교적 경험을 찾아 자유주의적 교회를 떠나 한층 더 진지한 보수적 교회로 이동하고 있음이 관찰됐다. 개종자들을 이끄는 데는 자유주의 교회 보다 보수 교회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이라며 “한국교회도 수평이동 현상을 ‘회중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심적 변화요인(switching factor)’을 중심으로 연구해 보니, 그 원인은 외견상 인간관계(목회자와 교인)에서 출발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예배와 설교’에 있었다”고 말했다.

박 박사는 “구체적으로 교회이탈은 신앙생활주기 과정에서 회중이 어떤 심리적 과정을 거치는지 분석 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이 교회에 방문하는 이유는 영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있고, 교회는 회중에게 교회의 존재 목적을 교회의 안과 밖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며 “교인들의 신앙 생활은 일정한 주기를 갖게 되는데, 그 신앙생활주기는 일반적으로 ‘전도-목회이미지-방문-출석-정착-양육-훈련-사역-재생산(변신)’의 형태로 제공되는 일련의 목회사역을 말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교인들은 최초 교회선택과 반복 교회출석을 통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때 교인들은 3가지 이상의 복잡한 심리 과정, 즉 기대-성과 불일치, 인지부조화, 귀인과정 등을 겪는다”며 “첫째 ‘기대-성과 불일치(expectancy-performance disconfirmation)’는 개인이 교회를 방문할 때 이전에 가졌던 이미지(기대치)와 방문 이후 실제 경험한 이미지(실제치)를 비교해 실제치가 더 크면 출석하고, 기대치가 더 크면 교회이탈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둘째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과정은 한 개인이 선택한

교회에 출석하면서, 정말 잘 선택했는지 심리적 갈등/불편함(psychological discomfort)을 의식적으로 해소하려는 과정이다. 이런 부조화를 적절히 해소하거나 감소시키면 교회에 만족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불만족을 유발해 교회이탈을 하게 된다. 셋째 ‘귀인(attribution)’ 과정은 개인의 심리적 갈등 이후 다시 한 번 추론 과정을 거쳐 만족했을 때 비로소 교회 등록(정착)을 하는 것이다. 불만족하면 귀인 과정을 거쳐 교회이탈을 하게 된다.

박관희 박사는 “방문자의 교회 선택행동은 관여 수준(involve level)과 과거경험 정도에 따라 크게 복잡한 의사결정 행동, 교회충성 행동, 습관 행동, 다양성 추구 행동 등 4가지로 나뉜다. 여기서 관여도란 청중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서, 주어진 상황 하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지각 정도를 말한다”고 밝혔다. 고관여 수준은 정보탐색 양이 많을 때, 저관여 수준은 적을 때이다.

고관여 방문자의 교회선택 행동은 최초 선택행동인가 반복 출석인가에 따라 여러 교회 대안들을 자세히 비교·평가한 후 가장 선호하는 교회를 선택하는 ‘복잡한 의사결정 행동’과 고관여 방문자가 교회에 만족하면 호의적 태도를 형성해 반복 출석하는 ‘교회충성 행동’으로 나뉜다.

반면 저관여 방문자의 교회선택 행동은 방문자의 과거 선택경험 유무에 따라 그동안 선택하던 방식에 짚증이나거나 단지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교회로 이탈하는 ‘다양성 추구 행동’과 과거출석 경험이 있는 방문자가 선택한 교회에 어느 정도 만족해 복잡한 의사결정을 피하여 동일 교회를 반복 출석하는 ‘습관 행동’으로 분류된다.

박 박사는 “최초 교회선택은 ‘전도-이미지-방문-교회경험-예배경험-교회 이미지-신념/태도-출석’ 과정을 거치면서, 영성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임재 경험을 하게 된다. 반복 교회출석은 ‘정체성 경험-인지부조화-만족/불만족 경험-귀인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열려

과정- 등록’ 과정을 거치면서 예배와 기독교 정체성 경험을 통해 하나님 임재의식을 형성하도록 한다”며 “결국 교회 출석의 결정 요인은 영성을 포함한 예배와 기독교 정체성 경험을 통한 ‘하나님 임재 의식’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와 같이 한국교회의 교회이탈 과정은 융복합적 관점에서 교인의 행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공한다”며 “이와 같은 분석 틀은 현대목회 영역에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함의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4세기 교회의 ‘미스타고지’

이어 김정 박사(장신대)는 ‘지금 그리고 영원히: 세계 공동체의 신앙형성과 미스타고지 다시 주목하기’라는 제목으로 4세기 교회에서 행해졌던 ‘미스타고지(mystagogy)’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4세기 교회는 부활절에 갓 세례 받은 신자들(neophyte)을 대상으로 부활 후 8일간(Easter Octave) 특별한 목회적 가르침을 실시했다. 갓 세례받은 이들은 교회에 모여 자신들이 경험한 성례가 지난 깊은 의미를 감독에게 듣고, 감독은 성례전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로 이들을 인도했다. 미스타고지란 곧 ‘성례전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mysterion, 미스테리온)로 갓 세례 받은 사람들을 이끄는(agein, 아게인) 것’이다.

김 박사는 “4세기는 미스타고지의 황금기로서 예루살렘 감독 씨릴(Cyril of Jerusalem), 밀란의 암브로스(Ambrose of Milan), 안디옥 크리소스토ム(Chrysostom of Antioch), 몹수에스티아의 테오도로(Theodore of Mopsuestia) 등이 대표 인물”이라며 “5세기 이후 급증한 유아세례로 인해 미스타고지는 쇠퇴하기 시작했고 거의 잊힌 듯 보였다. 그런데 20세기 후반 RCIA(Rites of Christian Initiation of Adults)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 세례와 세례자 교육이 재조명되면서, 미스타고지에 대한 관심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 대규모 회심이 일어나자, 4세기 교회는 ‘새로운 기독교인 만들기’라는 과제 앞에 섰다. 이방인이 몰려들던 4세기 교회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주된 임무가 되면서 세례 신앙형성 교육과정 또는 세례예비자 교육과정을 뜻하며 교회에 들고자 처음 찾아온 순간부터 세례 대상자가 되어 세례반 앞에

서기 직전까지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카테쿠미네이트(Catechumenate)’가 매우 발달한다. 세례 후보자들에게 ‘집중 교육(lenten catecheses)’을 시키는 시순절과 이어서 세례를 받는 부활절이 성대하게 지켜지면서, 교회력도 발전했다.

그는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세례 예식 또는 기독교인 만들기 과정은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고 해석된다. 그럼에도 4세기 교회의 예배가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세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매우 초기 기독교로부터 단 하나의 규범적 순서 또는 원형이 있었으리라는 기대는 금물이고, 오히려 우리는 다양한 세례 예식 가운데 각 공동체가 지닌 신학적·예전적·목회적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구조적 틀을 창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정 박사는 “미스타고지에서는 정식 예배가 설교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 영광송으로 마치는 등 성경을 토대로 했고, 신속 편의주의를 추구하는 현대 문화와 달리 이미지와 상징적 행동 등 의례적 행위를 중시했으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면서도 의례를 통하지 않고도 시각과 후각, 청각 등 감각과 경험, 그리고 공간을 활용했다”며 “우리는 예배 안에 나타나거나 세례예식 안에 경험한 하나님의 신비를 계속 들려줄 수 있도록 미스타고지를 회복해야 한다. 되풀이 기억함은 신앙형성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함께 여행을 간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을 보듯,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세례 받은 사람들이 함께 그 시간을 기억하며 축하한다면,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세례의 깊은 의미가 서서히 일상적 시간의 흐름을 깨고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할 때 세례 받은 기독교인의 하루는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한 날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날들이 이어진다면, ‘지금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세례 받은 기독교인으로서 계속되는 세례 성례전적 삶(on-going baptismal life)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날 정기학술대회에서는 이 외에도 ‘풀 틸리히 상관관계 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불안에 대한 실증적 탐색(한국실증치료연구소 이상현)’, ‘오늘의 목회적 상황을 위한 설교 커뮤니케이션 이해(경동교회 배영호)’, ‘예배와 설교의 위치(송의연대 김병석)’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대웅 기자

2018 미주기독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ABHE 정회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I-20 범행 및 각종정책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기독교학원, 목회학원(M.Div), 성경학원, 선교학원,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입수 후 미국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원, 관리 신설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8,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 info@aeu.edu aeu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기능), 학사, 석사, 박사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회 목사고시, 인수기능) I-20범행 및 각종 정책제도 15605 Camera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척주의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 전: Sevis I-20 범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적 석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적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적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렌트 프라이스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213)381-7755 Fax.(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퍸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혁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선교사로 살아갈 날들이 설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6) – 윤승준 집사

양을 치며 보낸 모세의 40년을 허송세월로 보는 사람은 없다. 이 시간은 바로의 궁궐에서 보낸 40년의 세월과 더불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운 중요한 시간이었다. 양떼를 치며 보내야 했던 목마른 세월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팽개친 시간이 아니라 모세를 다듬어 주신 훈련의 세월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다듬어 사용하신다. 남가주에서 활발히 스마트폰 활용법을 강의하는 윤승준 안수집사를 만났다. 마침 윤승준 집사는 평신도 선교사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평신도 선교사로 출발하려는 시점이었다.

모범생 윤승준의 교회 생활

윤승준 집사는 문화촌에 있는 삼덕교회 출신이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 당시 삼덕교회는 그루터기 선교회 조성범 목사, 남아공에서 수십년간 모범적으로 사역하는 조성수 선교사, 평생을 파라과이에서 헌신한 김성영, 박용순 선교사, 박인식 목사 등 기라성 같은 사역자들을 배출한 건강한 교회였다.

이런 헌신자들과 함께 성장하면서도 윤승준은 늘 모범생이었다.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그리고 대학부 회장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윤승준 집사는 견고한 신앙의 기초를 쌓았다.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을 갖지 못했지만 윤승준 집사는 어느덧 확신 있는 신앙인이 되었다.

윤승준 학생은 성실했다. 신실하고 착한 학생으로 교회에 알려졌다. 학생회 시절이나 청년 대학부 시절에 열심히 봉사도 했다. 재능도 있었다. 성가대 대원으로, 성가대 지휘자로, 찬양단 리더로 봉사했다. 그래서 젊은 시절 윤승준은 믿음 있는 학생, 믿음 좋은 젊은이로 늘 인정을 받았다. 따라서 윤승준 청년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마음을 가졌다.

거침없는 젊은 날들

윤승준 집사의 젊은 시절의 삶은 승승장구였다. 81년경에 컴퓨터를 접하고 컴퓨터와 함께 젊은 시절을 보냈다. 컴퓨터 분야는 80년대 그리고 90년대에 최첨단 산업이었다. 한국 컴퓨터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윤승준 집사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였다. 81년부터 컴퓨터를 만진 이후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했고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도 남겼다.

미국 생활과 하나님의 만지심

윤승준 집사는 92년에 미국행 이민 보파리를 쌌다. 고단한 이민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미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윤승준 집사의 삶은 처절한 무명의 삶이었다. 우선 교회에서 무명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는 찬양 인도자로, 성가대 지휘자로 주목받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윤승준 집사는 음향 부스에서 음량을 조절하며 찬양인도자와 설교자들을 돋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봉사를 7년간 계속했다. 무명의 세월은 교회에서만이 아니었다. 일상의 삶에서는 더 심했다. 오래 무직자로 살았다. 신분이 해결되지 않아 정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막막한 세월을 보냈다. 자랑스러운 컴퓨터 기술은 사용할 기회가 없었고 컴퓨터 수리 일이 전부였다. IT 업계의 선두주자였던 윤 집사에게는 고통의 세월이었다.

그러나 윤승준 집사는 세월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먼저 윤승준 집사는 돋는 자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 무대가 아닌 음향 부스에서 섬기는 경험들을 통해 섬김의 비밀을 깨닫는다. 참된 섬김은 음향 부스 뒤에 숨어서 섬기는 것과 같다. 구조적으로 영광과 박수, 환호를 받을 수 없다. 이런 환경에 머물렀던 7년의 세월은 윤승준 집사에겐 훈련과 축복의 세월이었다.

아울러 윤 집사의 교만을 산산이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손길을 경험한다. 돌아켜 보면, 윤 집사는 교만했었다. 그는 주목과 칭찬을 받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다. 교만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하였다. 은혜로 주신 은사와 기술을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여겼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기술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회복 그리고 축복의 세월

미국에서 생활이 안정을 찾을 무렵 윤승준 집사는 인터넷 접속 기



윤승준 집사

술을 개발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는다. 주변에서는 반응이 대단했다. 엄청난 돈을 벌게 될 호재였다. 그런데 관계자들의 사소한 실수들로 말미암아 지루한 소송에 말려들면서 기술을 조기에 개발한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품을 출시할 수 없고 소송이 완료될 즈음에는 개발한 기술이 일반화되어서 조기에 개발한 기술이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어 벼린 것이다.

조급한 윤승준 집사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기술개발을 하는 강행군을 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 중에 하나가 건강악화였다. 당뇨로 건강을 거의 완전히 잃게 된 것이다. 2011년 그는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된다. 모든 것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돌아온 윤승준 집사는 힘겨운 회복의 세월을 갖는다. 새벽기도가 축복이었다. 그는 새벽시간을 철저히 하나님께 드린다. 육체적 회복에는 등산이 유효했다. 5년 동안 매일 등산을 했다. 건강이 완전히 좋아졌다.

이 회복의 시간에 윤승준 집사는 큰 깨달음을 얻는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한 길을 하나님께 알리는 기도를 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은 없었다. 자신의 선택대로 살았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기도가 바뀌었다. “하나

님! 이제 무엇이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5년간의 세월을 통해서 영적으로, 체력적으로, 지식적으로 준비된 윤승준 집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 지금까지 쌓아온 IT에 관한 지식과 기술로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스마트폰을 더 스마트하게”로 복음 방송에서 라디오 강의를 했다. 라디오 코리아에서도 그의 강의가 방송을 탔다. 전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작한 His Cafe에서, 그리고 각종 집회에서 스마트폰 강의를 하게 됐다.

부르심에 순종하며

윤승준 집사의 스마트폰 강의는 전도를 위한 도구다. 불신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다. IT 강의를 통한 전도는 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윤승준 집사는 생각한다. 외부 활동이 많아지자 자연히 교회 내 사역은 제한 받게 되었다. 그래서 소속 교단으로부터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

과거 윤승준 집사는 이런 부르심에 쉽게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는 늘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많았다. 주신 달란트에 대한 사랑하는 교만함이 있었다. 그러나 각종 훈련을 통하여 윤

승준 선교사는 ‘이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다.

윤승준 선교사의 비전과 기도제목

윤승준 선교사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몇 가지 비전들이 있다. 우선 IT 기술과 정보가 새로운 전도의 방법과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또 주신 은사와 경험을 활용해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이 되기를 소망한다. 아울러 지역 교회들에게 전도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회가 많이지기를 바라고 전도의 장으로 마련된 His Cafe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비전이다.

윤승준 선교사는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품은 기도 제목이 있다. 먼저 그는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한다. 그는 전도의 현장과 이 사역을 함께 이어 나갈 동역자를 주님께 구하는 것이다. 둘째로 그는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한다. 윤승준 선교사는 자신의 약함을 잘 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는 것이 사는 길임을 알기에 더욱 간절히 기도한다.

윤 선교사의 마지막 기도는 건강을 위한 기도이다. 건강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아 마음껏 일하고 싶은 소원이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한 믿음의 길을 제시하는 스마트한 사역이 되기를 기도한다.

강태광 편집위원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당뇨의
근본적인
치료

Cyclo-Z

세계최초
당뇨치료를 위한
생약제제

비만의
개선

전립선
질환 개선 및
알츠하이默의
예방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이 없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에서 미네랄의 하나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어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진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에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혈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하지절단)
37%(미세혈관병증증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제1교회장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UO-A대 대학 생명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암방재원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출원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213.434.1170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prozusa@gmail.com



NYSKC FAMILY CONFERENCE

Washington, DC 2018

"The Comforter has Come" (John 14:26)

"성령이 오셨네" (요 14:26)

June 26-29, 2018

UNIVERSITY OF MARYLAND

Contact Us

Tel. 845-355-8829/703-725-6468

646-269-0045/646-203-2644

nyskcusa@gmail.com

www.nyskc.org



Nyskc World HQ

총 재 :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 최고센 목사
실무회장 : 이병완 목사

Nyskc Learned Society

회복의 신학연구학회
학회장: 윤사무엘목사 (G.T.S.학장)
학회실장: 최기성 목사 (답스페리한인교회)

NYSKC Family Conference DC 2018 동부본부 조직위원회

본부장 : 손기성 목사 (은혜장로교회) 예배분과 : 심대식 목사 (로고스찬양교회) 재정분과 : 이은숙 목사 (우리들교회)
부본부장 : 한훈 목사 (갈릴리순복음교회) 음악분과 : 김국민 목사 (알링턴한인교회) 대외협력분과 : 류광현 목사 (꿈이있는교회)
총무 : 심정기 목사 (알렉산드리아교회) 교육분과 : 김영배 목사 (후랭코니아교회) 봉사분과 : 박희숙 목사 (요니장로교회)



When the worship is restored, the church is risen, the nation is renewed, and the family is revived.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살고 나라와 가정이 산다 (NYSKC THEME)